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818호, 제1820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17년 5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6월 1일

II . 개요

-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171억 3,294만원, 징수결정액 208억 4,6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억 6,850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462억 7,52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4억 4,86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3,5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9,156만원임.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회투자기금의 2016년도 수입·지출액은 △129억 3,076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99억 2,597만원임.

Ⅲ. 세입·세출 결산검토

1. 세입 결산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8억 4,65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71억 3,294만원 대비 118%인 203억 6,850만원이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억 8,859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53억 7,554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임.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148억 1,31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미수납액은 총 4억 7,805만원으로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그 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임.

2. 세출 결산

가. 총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1억 9,886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전년도 이월액 7,638만원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462억 7,524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9.2%인 1,304억 4,865만원이 지출되었고, 35억 3,5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8.4%에 해당하는 122억 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4건, 35억 952만원으로 전용을 통하여 증액된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간 전용〉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19,800천원

〈동일사업 내 예산과목 변경〉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시설비 3,398,727천원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감리비 34,000천원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시설부대비 57,000천원

- 예산 이체는 총 3건, 2억원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일자리노동국 신설에 따라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기본경비 84,000천원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70,000천원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행사실비보상금 46,354천원

다.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1억 2천만원으로 변경사용이 발생한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120,000천원

라. 예비비 지출

-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건, 34억 8,972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3,489,727천원

- 사고이월은 총 1건, 4,53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5,300천원

바. 집행잔액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22억 9,15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4%)이며, 사업별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사업별 불용 현황〉

(단위:천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466,200	1,700,394	765,806	31.1
2	중소기업 고용지원	1,265,400	664,506	600,893	47.5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3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191,200	150,364	40,835	21.4
4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8,000	4,639	3,360	42.0
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96,000	72,000	24,000	25.0
6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제도 운영	96,500	70,217	26,282	27.2
7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100,000	71,127	28,873	28.9
8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630,000	246,259	383,740	60.9
9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100,000	57,671	42,328	42.3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171억 3,294만원에서 37억 1,362만원이 증가한 208억 4,65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3억 6,850만원을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97.7%).

〈2016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7,133	20,846	20,368	478	97.7
200 세외수입	2,010	5,664	5,186	478	91.5

210 경상적세외수입	447	289	289	-	100.0
211 재산임대수입	447	283	283	-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47	283	283	-	100.0
212 사용료수입	-	6	6	-	100.0
212-08 기타사용료	-	6	6	-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63	5,375	4,897	478	91.9
224 기타수입	1,563	5,375	4,897	478	91.9
22404 시·도비환급금수입	832	2,870	2,397	473	83.5
224-06 그외수입	731	2,506	2,500	5	99.7
500 보조금	14,900	14,813	14,813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4,900	14,813	14,813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4,900	14,813	14,813	-	100.0
511-01 국고보조금	5,253	5,435	5,435	-	1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47	9,378	9,378	-	100.0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3	369	369	-	100.0
710보전수입등	223	369	369	-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억 8,859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53억 7,554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 수입 등이며, 보조금은 총 148억 1,31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임.
- 이 중 미수납액은 총 4억 7,805만원이며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2) 세출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62억 7,524만원이며 이

중 1,304억 4,865만원을 지출하고 35억 3,5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9,156만원임. (예산현액의 8.4%)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8억 4,65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03억 6,850만원을 수납하여 97.7%의 수납율을 보임.
- 최근 세입결산 수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있던 일자리·노동·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일자리노동 정책관으로 분리되면서 세입결산액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6	17,132	17,132	20,846	20,368	478	-	478	97.7
2015	1,272	1,272	3,742	3,665	76	-	76	97.9
2014	441	441	788	655	132	-	133	83.1

- 하지만 2016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208억 4,656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인 171억 3,294만원보다 약 21% 증가한 액수로 당초 세입예산의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된 주요 사유는 예산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자치구 및 민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이 대부분으로 이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이긴 하나,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부족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발생사유
공유재산임대료	448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감면대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무역 가게 입차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대부료 감면(50/1,000-)>10/1,000)
시·도비반환금 수입	831	2,870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자치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집행잔액 반납 852백만원 -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41백만원 등
그외수입	731	2,50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민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교육원사업 부과 세입 예상 초과 833백만원 - 사회적지원센터 위탁사업비 반납 등 340백만원

-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남부기술교육원 법인에 대한 사용료 560만원을 부과 조치하여 징수한 바가 있음.
 - 서울시(이하 “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남부기술

교육원 내에 위치한 법인의 사무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2017년 세입예산에는 반영하였음. 향후에도 위탁을 맡긴 수탁 업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접수입처리사유
	총 계	2,499,870.6	
1	지역산업맞춤형 민간보조 집행잔액 등	67,775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	지역공동체 사업 보험료 환급금	899	보험료 환급
3	한국폴리텍대학 노후시설개보수비 지원에 대한 이자액	189	이자수입 반납
4	뉴딜일자리 매니저 보험료 환급	1,377	보험료 환급
5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금 집행잔액	1,271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6	기술교육원 성과금 환수	13,510	성과금 환수
7	희망근로사업 미환수액 납부	285,495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8	중소기업인턴십 초과지급금 등 환수	15,257	초과 지급금 반납
9	기술교육원 사업비 집행 잔액 등	1,564,296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0	서울지역인자위 집행잔액 등	5,967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1	기타보험금등	0.6	보험료 환급
12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01,022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3	골목경제 협동조합지원사업 집행잔액	6,595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4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등	28,804	이자수입 반납
15	사회적지원센터 위탁사업비 반납 등	5,709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6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납	340,307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7	공정무역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납	32,069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18	국제사회적경제협회의체운영집행잔액	92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19	사회적기업 양성가 보조금 잔액 등	21,246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0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5,94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21	기타 사업비(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등) 반납 등	1,214	사업비 정산잔액 등 반납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462억 7,52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61억 9,886만원보다 7,638만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9.2%인 1,304억 4,865만원이 지출되었고, 35억 3,5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4%인 122억 9,156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6	146,199	76	-	-	-		-	146,275	130,449	3,535	12,292 (8.4%)
2015	163,427	-	-	-	-		-	163,427	145,059	30	18,227 (11.1%)
2014	129,836	149	-	-	-		-	129,985	115,154	-	14,832 (11.4%)

- 한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8.4%로 전년도 불용률인 11.3%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액수는 약 122억원임.

- 그러나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인 1.7%와 시의 세출결산액 전체 평균 3% 대비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1)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일자리노동정책관의 2016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의 경우 총 4건, 35억 9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예산 전용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금액		전용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11,000	19,800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증축 관련 안전진단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401-01 시설비			19,800	
2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10,000	3,398,727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히수도 협회 건물로 이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401-01 시설비			3,398,727	
3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1,273	34,000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히수도 협회 건물로 이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401-02 감리비			34,000	
4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7,273	57,000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히수도 협회 건물로 이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401-03 시설부대비			57,000	

- 시는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의 안전진단을 위해 1,980만원을 전용했으며, 강북 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를 위해 총 34억 8,973만원을 동일사업 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하였음.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의 이용과는 달리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불용액을 줄이려는 시의 노력이 엿보이나, 강북 근로자복지관 이전의 경우 해당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산의 전용이 남용되면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016회계연도 이체는 총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노동정책관(일자리노동국)이 출범하며, 기본경비 및 혁신기획관에서 소관하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임.

〈예산 이체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예산 과 목			금 액		이 체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84,000	'16.2.4. 조직개편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62,500	84,000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금액		이체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2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	'16.2.4. 조직개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	70,000		
3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6,354	'16.2.4. 조직개편 (개편 전 부서에서 사고이월처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6,354	46,354		

-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으로, 1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예산 변경사용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금액		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80,000	120,000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
		201-02 공공운영비			120,000	

- 예산의 변경사용 또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 취지와 달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창립이 늦어지면서 결국 변경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음.

- 이는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예산 변경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반기에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듦.

(2)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6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34억 8,972만원, 사고이월은 총 1건, 4,5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명시이월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3,630,000	140,273	3,489,727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해 舊상하수도협회 건물 (상수도사업본부) 리모델링 및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 당초 임차이전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여 '16. 10월 설계발주 후 설계공모 및 설계기간을 감안, '17. 3월 착공예정으로, '16년 집행예정인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 이월

〈사고이월 현황과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80,000	369,253	45,300	65,447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2015회계연도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단 한 건의 사고이월(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관리, 3,003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2016회계연도의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35억 3,502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월액의 증가는 예산 편성시에 사업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명시이월이 발생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은 지난해에도 96.7%의 불용률을 보인 사업으로 이를 반영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판단됨.
- 또한 2015회계연도의 사고이월 사업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관리”와 2016회계연도의 사고이월 사업인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모두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과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임.
- 이처럼 전년도의 예산 중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거나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차년도에도 이월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는 11.4%, 2015회계연도 11.2%, 2016회계연도 또한 8.4%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예산현액(A)	129,985	163,427	146,275
집행잔액(B)	14,832	18,338	12,292
비율(B/A)	11.4	11.2	8.4

-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소관 사업 중 아래 14개의 사업은 2016 회계연도 집행잔액의 비율이 15%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임.

〈2016회계연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 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466	766	31.1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공모일정 지연('16.5.) 및 사업 특성상 기업 선정 후 기업의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건비 지원금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신청이 적었음
2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7,619	1,177	15.4	재무국 계약심사와 용역위탁심사팀에서 계약심사 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과 지원금을 삭감하여 실제 지출액 감소
3	중소기업 고용지원	1,265	601	47.5	지원 대상 기업의 채용이 지체되어 잔액 발생
4	노동존중문화 확산	255	49	19.3	상반기 노동채자 수요량을 '15년 생산분으로 충당
5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191	41	21.4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 을 도기본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실시
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706	574	15.5	민주노총 사업비 신청 지연(9월)
7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8	3	42.0	'16년 본회의를 상반기 1회 개최
8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96	24	25.0	국비 교부신청(1월)에 후 고용노동부 자체심사(3월)에 따라 감액 교부(43→28)
9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97	26	27.2	노동권리보호관 권리구제사업 5월부터 실시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10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100	29	28.9	당초 4회 예정 컨설팅 3회 실시
1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630	384	60.9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이 늦어지면서('16.11월) 이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공공운영비) 120백만원 미지급 - 1호사업 착수 연기되면서('16.8월) 아이디어 대회 등 사업비 200백만원 미집행
1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1,465	257	17.6	혁신형 사업 목표 30개 → 16년 신규 19개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공모사업으로 혁신형 사업에 적합한 사업 선정)
13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100	42	42.3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딩 대회 개최로 예산절감(고용노동부 예산 40백만원)
14	마을기업 육성	485	90	18.5	행정자치부 지원 기준 미충족으로 일부 미선정

- 시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 으로 불용률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사업별 검토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시는 청년층 및 어려운 고용 여건에 있는 시민들의 직업역량을 배양 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 하고자 2013년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왔음.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인 서울시민으로, 2016년 총 78개 사업, 2,160개의 시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평균 9개월간 시간당 6,200~6,800원의 시급, 일 6~8시간의 조건으로 근무 하였음.

-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5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15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14%의 불용률을 보여, 21.88%의 불용률을 보였던 전년도에 비해 예산집행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계	25,160	21,573	21,573		3,587	1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242	17,151	17,151		3,091	15%
사무관리비	1,981	1,750	1,750		231	11%
민간경상사업보조	2,937	2,672	2,672		265	9%

- 14%의 불용률이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의 규모는 35억 8,700만원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사업의 집행잔액 중 가장 큰 액수이며,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의 대부분의 사업이 35억 미만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음.

〈2016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현황〉

(‘16. 12월말 기준, 단위: 명)

계획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중도이탈	계약종료	근무인원
2,342	4,034	2,160	341	421	1,442

※ 중도이탈 사유 : 취·창업(155명), 건강상, 학업 등 개인사정(186명)

- 동 사업의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선발 인원의 15%인 341명의 중도이탈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미달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임.

- 중도탈락율에 의한 집행잔액은 뉴딜일자리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원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대안으로 정원외 10%의 인원을 더 선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뉴딜일자리사업은 당초 총 46개 사업의 1,688개의 일자리를 계획하였으나, 다섯 번의 뉴딜일자리 추가 사업 선정위원회를 거쳐 동일한 예산 하에 2,342개의 일자리로 확대 변경하였음.

- 연간 다섯 번의 세부 추가사업 선정에도 14%의 잔액을 남긴 것은 연초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보임.

- 한편 동 사업은 2017년 사업 확대를 계획중으로 당해연도의 두 배 규모인 총 293개 사업, 5,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잦은 세부사업의 변경, 중도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단순히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 늘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경력 형성 및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중소기업 고용지원

- 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시 및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월 60만원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 월 4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 시는 2016년 해당 사업에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억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47%의 불용률을 보였음.

〈중소기업 고용지원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계	1,266	665	665		601	47%
사무관리비	406	380	380		26	6%
민간경상보조금	860	265	265		595	69%

- 그러나 이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대상 기업의 선정이 8~9월에 시행됨에 따라 고용지원금 전액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당해연도에 가능한 지원분을 감추경(△13억 9,060만원)한 것으로, 한차례의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인 것은 시의 예산 편성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시는 지난해 8월, 127곳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채용 및 지원금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선정된 기업들의 채용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시에서 공모·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시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상반기에 실행하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또한 동사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의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며,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위해 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③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 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영등포구 문래동 위치)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은평구 불광동 위치)을 운영중이며,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부터 5번의 재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중임.
- 2016회계연도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36억 3천만원의 예산 중 3.8%인 1,403만원만을 이전 예정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사용하였을뿐, 예산의 96.2%인 34억 8,97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2016년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계	3,630	140	140	3,490	-	-
사무관리비	20,273	20	20	-	-	-
민간위탁금	120	120	120	-	-	-
시설비	3,399	3,399	-	3,399	-	-
감리비	34	34	-	34	-	-
시설부대비	57	57	-	57	-	-

- 그러나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도 예산의 대부분인 96.7%, 35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당시의 예산도 건물의 이전을 위해 편성하였던 것임.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이전 사업비	2017	1,120,000	-	-	복지관 이전을 위한 회계이관비 편성
	2016	3,510,000	20,000	3,490,000	시유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시설비 로 전용 후 예산잔액 명시이월
	2015	3,510,000	0	3,510,000	민간건물 임차부진으로 미집행 예 산 불용처리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14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라,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2015년, 동 시설을 위해 임차할 민간 건물 확보가 어려워 이전이 지연되었으며, 2016년에는 시 소유 건물 중 구 서부수도사업소(마포구 아현동 위치)가 유휴 시설이 되어 해당시설로의 이전을 확정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상담을 위한 리모델링 필요로 해당 예산을 타 편성목으로 전용 후, 명시이월한 것임.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증	감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10,000		3,489,727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하수도 협회 건물로 이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401-01 시설비		3,398,727		
	401-02 감리비		34,000		
	401-03 시설부대비		57,000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현장교육, 법률지원 권리 구제 등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 또한 2002년 이후 4차례나 건물을 이전하여, 민간시설이 아닌 시 소유 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시설이전을 위한 예산이 3년 연속으로 편성된 것은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당시부터 지원 단체 및 수탁기관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④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업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추진으로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산업현장 및 민간위탁 사업장의 근로기준 컨설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6년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1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21.4%의 불용률을 보였음.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예산 세부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계	191	150	150	-	41	21.4
사무관리비	191	150	150	-	41	21.4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노무진단 및 산업안전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은 총 145건의 컨설팅이 실시 되었음.

〈2016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내역〉

부서명	1차	2차	3차	비고
건축부	10	12	13	서울시 어린이 병원 건립공사,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 공사 등
도시철도사업부	4	2	4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등
도시철도설비부			1	우이~신설 시스템
도시철도토목부	9	8	7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방재시설부	10	11	8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설비부	1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토목부	14	15	16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합 계	48	48	49	

- 당초 예산편성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에 노무진단과 산업안전진단 두 종류의 컨설팅 실시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의 안전관리과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자체 실시함에 따라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불용률 21.4%).
-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및 불용사유를 보면, 2015년도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을 도기본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실시함에 따라, 해당예산의 미집행으로 잔액을 남겼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2014	285	46	16.1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14.6.4) 이후부터 사업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2015	251	57	22.9	노무컨설팅 사업 중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은 도기본에서 자체 실시함에 따라 미집행
2016	191	41	21.4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을 도기본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실시

-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집행잔액의 사유가 전년도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차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시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해보임.

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민간이 선투자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시는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시는 2016년 8월,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인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아동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경증 지적장애¹⁾ 및 경계선지능²⁾ 아동 1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이

1) 지적장애인 중에서 경한 자, 즉 지능지수(IQ)가 50~70인 지적장애인을 의미함.

들의 사회성, 지능 등이 일정수준 개선되면 사업 비용을 보상해줄 예정이다.

- 2016년 동 사업은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을 위한 한 차례의 변경사용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억 4,626만원만을 집행하였음.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			집행잔액 (C=A-B)	집행율 (B/A)
		소 계(B)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30,000	246,260	246,260	0	383,740	39.1%
사무관리비	260,000	46,260	46,260	0	213,740	17.8%
공공운영비	120,000	0	0	0	120,000	0.0%
행사운영비	250,000	200,000	200,000	0	50,000	80.0%

- 시는 지방정부간의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추진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 및 사업의 확산을 기대했으나, 협의회의 창립이 늦어지면서 이를 사유로 변경한 예산인 1억 2천만원의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했음.
- 또한 1호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의 착수가 연기되면서 이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등 사업비 2억원이 미집행되어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라 시는 설명하고 있음.

2)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느린 학습자’라 불리며, 정서불안, 학습부진으로 사회에 부적응하는 비율이 높음.

- 이와 같이 과도한 불용률을 보인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임.
- 특히 사무관리비의 경우, 4,626만원만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17.8%의 집행률을 보임. 협의회 창립을 위해 변경한 공공운영비가 변경 전 사무관리비였던 것을 고려하면, 당초 사무관리비 예산은 3억 8천만원이며, 시는 2016년 사무관리비의 당초 예산의 12% 밖에 사용하지 않은 상황임.

〈2016년 사무관리비 세부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사 무 관 리 비	▶ 쟁점 연속 토론회	80,000
	- 포스터 제작 및 온라인 홍보	40,000
	- 대관 및 행사장 조성	20,000
	- 전문가토론 및 발제 수당	10,000
	- 자료집 제작배포	10,000
	▶ 후속사업별 연구용역	100,000
	▶ 지방정부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200,000

- 동 사업은 재정부담으로 복지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에 효율적인 예산이용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시아 최초의 사업도입 지자체인 시가 협의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예산을 변경한 취지 또한 공감함.
- 그러나 60%가 넘는 불용률을 보였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약 등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V. 사회투자기금 결산

1. 결산 개요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6년도말 조성액은 '15년도 대비 129억 3천만원이 감소한 99억 2,600만원임.

〈2016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조성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22,856,741	△12,930,761	8,825,573	21,754,335	9,925,979

2. 기금 운용(수입·지출) 현황

-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316억 8천 1백만원임.
 - 실제수입액은 전입금이 26억원, 융자금 원금 회수·예치금 회수로 인한 보전수입이 284억 4천 7백만원, 융자금 및 예금의 이자수입이 5억 5천 1백만원 및 기타수입이 8천 3백만원임.

- 지출액은 민간용자에 대한 사업비 206억 6천 4백만원, 비용자사업비 2억 1천 4백만원, 위탁운영비 8억 7천 7백만원, 예치금 99억 2천 6백만원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결산>

<지출결산>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계	33,517	31,681		계	33,517	31,681	
전 입 금	2,600	2,600		용 사 업 자 비	22,223	20,664	
용자금 회수	7,347	5,590		비 용 자 사 업 비	223	214	
용자금 이자	383	257		위탁운영비	899	877	
예금이자 등	247	294		예 치 금	10,395	9,926	
예치금회수	22,857	22,857					
기 타 수 입	83	83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수입·지출 부문

- 2016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316억 8,100만원임.
 - 실제수입액은 전입금이 26억원, 용자금 원금 회수·예치금 회수로 인한 보전수입이 284억 4,700만원, 용자금 및 예금의 이자수입이 5억 5,100만원 및 기타수입이 8천 300만원임.
 - 전입금 26억원은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 참여자를 위한 용자를 위해

주택정책국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이며,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총 130억원(매년 26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 지출액은 민간용자에 대한 사업비 206억 6,400만원, 비용자사업비 2억 1,400만원, 위탁운영비 8억 7,700만원, 예치금 99억 2,600만원임.
- 위탁운영비는 2016년까지 기금을 운용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게 지급한 비용임.

〈2016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	20,878
용자성 사업	소 계	20,664
사회적기업 용자 ※ 시:민간기금 2:1 매칭 용자 지원	(주)한마음에프앤씨(0.86억원) : 어르신 고용, 취약계층 장례 서비스 제공 (주)복지유니온(0.34억원) : 노인환자를 위한 영양식 제공 (주)송지(0.24억원) : 취약계층 고용 천기저귀 제작 및 배송 자리(주)(0.72억원) : 학교밖 청소년 고용 카페 운영 (주)인스케어코어(0.54억원) : 취약계층 고용, 청소 서비스 제공 (주)북티크(0.27억원) : 도서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공급 일촌나눔하우징(주)(1.34억원) : 저소득층 무료 집수리 제공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0.4억원) : 독거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주)네니아(1억원) : 유기농 제품 공급	805

	(주)리움(0.8억원) : 재활용 제품 제조 판매 (주)로앤컴퍼니(0.6억원) :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여행자플랫폼과자마과티협동조합(0.4억원)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바탕색건축(0.54억원) : 취약계층 고용 통한 저소득층 집수리	
중간지원기관협력 용자 ※ 시기금과 1:1~3:1 민간기금 조성	(사)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1.8억원) : 자부담 매칭 1.8억원 한국사회혁신금융(주)(2억원) : 자부담 매칭 1억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5억원) : 자부담 매칭 2.5억원 언더독스(주)(0.6억원) : 자부담 매칭 0.2억원	940
소셜하우징 용자	아이부키(11.36억원) : 독거노인 및 창작예술인 맞춤형 주택,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3건) 함께주택협동조합(0.6억원) :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사)일상예술창작센터(3.73억원) : 성산1동 공동체 주택 공급 주택협동조합하나의(2.84억원) : 공동체 주택 건공급 드로우 주택협동조합(1.92억원) : 빈집살리기 사업 추진 (주)녹색친구들(8.63억원) : 공동체 주택 및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2건) 함께사는집 트락(7억원) : 공동체 주택 공급 보후너스주택협동조합(0.56억원) : 빈집살리기 사업 추진 주택협동조합 은혜공동체(10억원) : 공동체 주택 공급 완두콩 주택협동조합(4.22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주)두꺼비하우징(3.9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대한성공회유지재단(3.5억원) : 공동체 주택 공급 나눔주택협동조합(0.65억원) : 빈집살리기 사업 추진 (주)선랩건축사 사무소(0.67억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주)어반소사이어티(4억원) :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주)안테나(4.86억원) :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7,644

사회주택활성화 용자	드로우 주택협동조합(3.93억원) : 빈집살리기 사업 추진	2,600	
	(주)녹색친구들 (2.42억원) : 공동체 주택 및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2건)		
	보후너스주택협동조합(0.19억원) : 빈집살리기 사업 추진		
	원두콩 주택협동조합(1.18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주)두꺼비하우징(2.18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주)선랩건축사 사무소(0.83억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주)안테나(1.48억원) :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아이부키(6.79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안하우스(7억원) : 토지임대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주)뉴튼프로퍼티(0.5억원) : 청년 공동체 주택 공급	7,675	
	(주)공무점(0.5억원) : 임대료 걱정 없는 임대 상가 공급		
	협동조합 온리(1.8억원) : 재활용 기념품 판매장 운영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4.68억원) : 가정용 태양광 모듈 확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2억원) : 중소 공연장 지원 시스템 개발		
	푸른마을주택 협동조합(10억원) : 소외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주)베어베터(8억원) : 장애인 고용 쿠키 생산		
	(주)커피창고(1.5억원) : 장애인 고용 커피 원두 생산		
	강서양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10.77억원) :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지 매입		
	푸르메재단(25억원) : 어린이재활병원 공간 마련		
자치구 지역기금 조성 용자	성동구(10억원)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1,000	
비용자성 사업		소 계	214
국제행사 및 홍보	- 사회적금융 심포지엄 개최, 용자 수혜 사회적기업 홍보 지원 등	174	
사회적가치평가 지표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요평가 방법론 개발, 채권관리체계 전산화, 기금 개편 자문단 운영 등	40	

- 연도별 용자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지원기업 수 또한 증가추세로, 이는 서울시 사회주택 보급 확산으로 소셜하우징 용자 사업의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사유로 보임.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용자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지원 금액	합계	67,756	21,123	9,348	15,954	21,331
	市 기금	53,664	10,900	7,488	14,612	20,664
	민간기금	14,092	10,223	1,860	1,342	667
지원 기업수		263	71	46	68	78

- 2016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금액은 6,151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치구 지역공동기금 조성사업 및 사회주택 활성화 등 신규용자사업 마련으로 전년 대비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최근 2년간 사회투자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5년		2016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합 계		22,054	15,603	23,122	21,754
1. 사회투자 용자사업		21,000	14,612	22,000	20,664
	1-1. 사회적기업 용자사업	3,000	2,048	861	805
	1-2. 소셜하우징 용자사업	8,000	5,003	8,254	7,644
	1-3.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2,000	1,850	1,000	940
	1-4.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8,000	5,711	8,285	7,675
	1-5. 자치구 지역공동기금 조성사업			1,000	1,000

	1-6. 사회주택활성화			2,600	2,600
2.	비용자 사업	1,054	991	1,122	1,090
	2-1.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개발	50	21	50	40
	2-2. 국내외 행사 및 홍보	119	110	173	173
	2-3. 위탁운영비	885	860	899	877

나.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은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임.
- 융자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 연 2%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1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임.
- 시는 2016년에 어르신 고용 및 취약계층에 장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마음에프앤씨에 8,600만원, 유기농제품을 공급하는 (주)네니아에 1억원 등 총 8억 500만원의 자금을 사회적기업에 융자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에 20억 4,8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임.
- 기존에 별다른 조건 없이 융자가 가능했던 반면 현재는 시와의 2:1 매칭을 통한 융자방식을 수행하고 있어, 매칭 기금 조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융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당초의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실적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기존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성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융자사업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금 융자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다.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사회적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에게 기금을 융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채용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 시는 2016년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4곳의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에 9억 4천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였음.
-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시가 출연한 기금과 매칭된 비율로 민간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본사업의 경우, 시 기금 : 기관 자부담 1:1, 시범사업의 경우, 3:1의 규모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융자와 마찬가지로 융자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기금의 타 사업의 금리조건이 2%인 것과는 달리 본 사업의 금리조건은 0%임.(※단, 채용자 금리는 연 4% 이내임)

- 그러나 중간지원기관이 약정에 따른 거치기간 종료 시까지 전액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미집행한 시 기금을 중도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간지원기관이 채용자 후 잔액이 남았음에도 시 기금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시 또한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아 기금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중간지원기관 융자금 반납대상 미집행금 내역〉⁸⁾

(단위: 천원)

중간지원기관명	총 융자금	약정기간내 미집행금	기 상환금	시정요구 대상금
논골신용협동조합	200,000	171,000	62,500	137,500
(사)루트임팩트	350,000	2,566	153,125	2,566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3,000,000	10,089	2,035,600	10,089
북서울신용협동조합	1,000,000	703,000	500,000	500,000
합 계	4,550,000	886,655	2,763,725	637,655

- 별도의 이자 없이 시의 기금을 융자해 개별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로 비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융자의 목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채용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을 볼 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라.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주거공간, 문화공간 등과 관련된 곳에

8) 2017년 사회투자기금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나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도 융자신청이 가능함.

- 건설사회적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총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당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며 연 2%의 융자로,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주택 등을 건설해 SH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기간은 건설 사업의 경우 최대 3년, 임대사업은 최대 5년임.
- 2016년 사회투자기금은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협동조합은혜공동체”에 10억원, 토지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에 4억 2,200만원 등 16개의 기업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26억이나 증가된 76억 4,4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타 융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감소한 반면 소셜하우징만이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주택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나, 부지 선정에 대한 제약과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수행기업의 선정과

정에서 기금 상환 능력이나 주택건설능력, 주택임대나 매각과 관련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사업 추진과정 등 용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 (주택건축국 사업)

- 서울시는 민간·공공 협력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프로젝트 등 공동체주택 공급사업을 시행중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를 위해 2016년 신규 편성하여, 26억원을 기금에 전입시킴.
-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는 최장 5년 이내, 연 2%의 저리로 용자하였으며, 소셜하우징 용자와 연계하여 한도 내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함.
-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는 빈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드로우 주택협동조합에 3억 9,300만원, 토지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아이부키에 6억 7,900만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선랩건축사사무소에 8,300만원 등 총 9곳에 26억원을 용자하였음.
- 사회경제적약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참여자에게 용자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회투자기금 내에 이미 소셜하우징 용자가 존재하며, 실제 시의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셜하우징 용자도 받고 있어 이러한 일부 기업에 대

해 중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16년 소셜하우징 용자-사회주택활성화 용자 이중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기업명	소셜하우징 용자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	
드로우주택협동조합	1.92억원	3.93억원	빈집살리기사업추진
보후너스주택협동조합	0.56억원	0.19억원	빈집살리기사업추진
아이부키	11.36억원	6.79억원	독거노인 및 창작예술인 맞춤형주택, 토지임대사회주택공급
완두콩주택협동조합	4.22억원	1.18억원	토지임대사회주택공급
(주)녹색친구들	8.63억원	2.42억원	공동체주택 및 토지임대사회주택공급
(주)두꺼비하우징	3.9억원	2.18억원	토지임대사회주택공급
(주)선랩건축사사무소	0.67억원	0.83억원	리모델링형사회주택공급
(주)안테나	4.86억원	1.48억원	예술인임대주택공급

바.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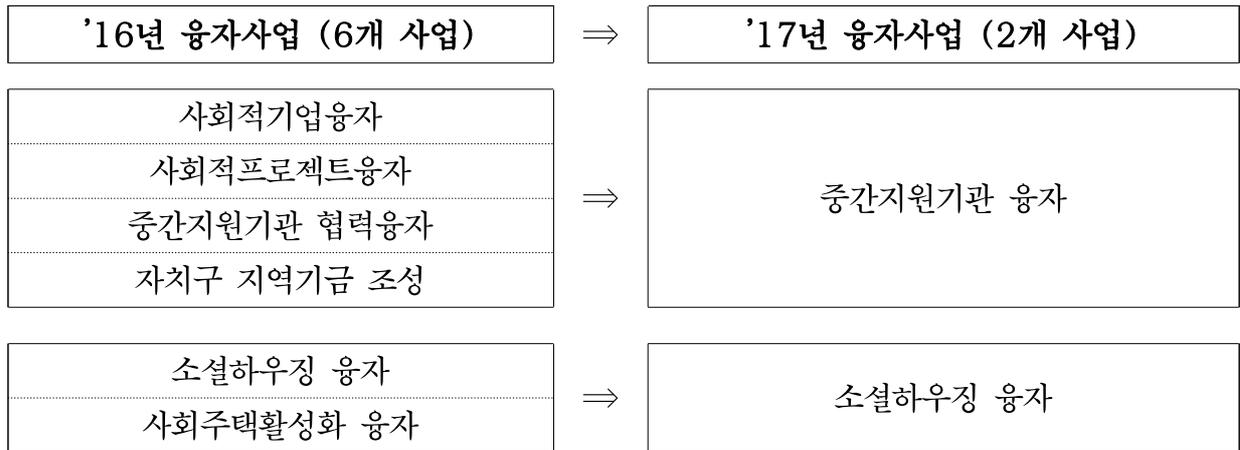
- 사회적프로젝트 용자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회문제들의 해결방안 도출이 기대되며, 그 수요 또한 가장 많은 사업임.
- 본 용자 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범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당 6천만원에서 25억원의 용자가 가능하고, 금리조건은 마찬가지로 연 2%, 최장 5년임.

-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 강서양천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에 10억 7,700만원, 가정용 태양광 모듈 확대를 위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4억 6,800만원 등 총 10개의 프로젝트에 76억 7,500만원이 용자되었음.
- 본 사업은 소셜하우징 용자와 함께 2016년 가장 많은 액수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청년주택공급, 장애인 고용쿠키 생산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사회적 가치창출과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형프로젝트 외에도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용자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겠음.

사. 사회투자기금의 개편

- 초기 500억원대의 규모였던 사회투자기금은 기부 등 새로운 자금의 유입없이 계속 축소되어 현재잔액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2016년 말 99억 2,597만원) 기금의 용자지원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운용해왔던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 민간위탁 금지에 따라, 2017년부터 기존에 운영되었던 용자 방식과는 달리, 시가 직접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 운용방식의 변경에 따라 시 기금과 선정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가용 자원의 확대가 예상되며,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직접 재융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시키고 기금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시가 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액은 총 119건, 364억 9,608만원으로(2017.4 기준) 총 138건의 융자 중 상환 완료된 19건을 제외한 수치이며, 기금 운용의 주체가 시로 바뀐만큼 향후 융자금 상환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보임.